

정부, 비축쌀 10만t 더 쏜다

농식품부... 주요 농산물 수급 상황·관리대책 발표 오늘 정부양곡 공매 공고... 쌀값 평년기준 10.7% ↑

정부가 공공비축미 10만t을 시중에 더 풀기로 했다. 쌀 가격 상승 폭이 5월 들어 더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금(金)자'로 불린 정도로 가격이 뚝 떨어진 감자에 대해서는 저울관세할당(TRQ) 일정 물량을 정부가 직접 수입·공급할 수 있도록 수급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농산물 수급 상황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15일 정부양곡 공매를 공고한다. 수확기까지 쌀값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0만t의 물량을 더 풀기 위해서다.

공고와 입찰을 거쳐 민간의 미국중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에 보관 중인 정부양곡에 대한 인수도까지 완료하려면 다음달 중순께나 시중에 풀릴 전망이다.

산지 쌀값은 지난 3월말 산물벼(건조하지 않고 수확한 상태 그대로 사들인 벼) 8만2000t을 시중에 쏜 뒤 전년 대비 0.1% 수준에서 쌀값 상승세를 유지해왔지만 5월부터 0.3%로 오르더니 6월 들어서는 0.5% 뚝 17만4096원(80kg 기준)을 기록했다.

현재의 산지 쌀값은 평년 기준으로 따지면 10.7%나 오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추후 원료곡 수급상황, 쌀값 추이, 올해 재배면적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수급관리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쌀을 제외한 주요 농산물 가격은 이달 상승 기준으로 평년 수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일과 노지채소는 평년보다 각각 7.2%, 5.9% 내렸다. 반면 시설채소는 0.7% 올랐는데 시설채소 특성상 기상여건이 호전되면 생육이 신속하게 회

복돼 단기간 내 정상 출하가 가능해 수급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작물별로는 감자는 이달 본격 출하기를 맞은 만큼 평년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봤다. 20kg 기준 도매가격은 지난달 중순 5만940원에 이어 하순 4만498원을 기록해 평년보다 40% 비싸게 팔렸다. 이달 상승세는 평년보다 5% 오른 2만5062원에 거래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랭지 감자 작황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올해와 같은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매비축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급이 불안하면 정부가 일정 물량을 직접 수입·공급하는 수급관리 시스템도 신규 도입한다.

평년보다 낮은 시세를 보이고 있는 양파와 배추의 경우 정부 수매비축과 채소가격안정제·출하안정제를 통해 물량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사과와 배 역시 평년보다 낮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지만 4월 이상 저온과 지난달 말 우박 피해로 추석 명절계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면 추석 한 달 전부터 계약출하 물량을 집중 방출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복안이다. 올해 계약출하 물량은 사과 6만1000t, 배 5만9000t, 단감 5000t, 감귤 1만1000t 등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농산물은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고 그 중에서도 채소류는 저장성이 낮고 국내 수급 불안시 신속한 수입을 통한 대체가 어려워 단기간 내 가격 등락이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며 "농산물 가격의 등락폭이 큰 것은 농가소득 안정과 가계의 안정적인 생산 전부터 생육·출하까지의 단계별 수급 조절 체계를 구축해 적정 생산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 관측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드론,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정보통신기술(CT)의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태 기자



(주)하림이 협력사와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하림, 협력사 초청 상생발전 간담회 열어

하도급 계약 관계 개선·상생 협력 관계 구축 농가 평균 조수익 2억 돌파 위한 방안도 모색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협력사와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14일 하림 익산가공공장 회의실에서 (주)하림 이문용 대표이사(왼쪽)를 비롯해 임직원 30여명과 (주)디지털포스터 김현수 사장 등 협력사 20여곳이 참여해 상호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자리는 협력사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하도급 계약 관계 개선 도모를 통해 협력사와 더욱 긴밀한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주)하림은 지난 7일에도 농가

협력사 20여곳을 초청해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올해 하림 농가 평균 조수익 2억원 돌파를 위해 농장 신장육 지원, 평당 생산량 증대 프로그램 가동, 사육 번상비 탐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주)하림은 도산농가 '1' 정책으로 최근 10년 동안 도산하지 않는 농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농가와 동반 상승하는 대포기점으로 자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익산=장영원기자

금감원, '금융공모전' 열어... 9월9일 모집마감

은 국민의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 13회 금융공모전이 개최된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금융협회 등의 후원을 받아 오는 9월 9일까지 작품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금융창작물과 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 금융생활 체험 수기 및 대학생 금융콘테스트 등 4개 분야다.

금융창작물은 전국 초·중·고교생 및 2000년부터 2011년에 태어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거래 경험과 금융의 중요성 등 금융생활 관련 주제를 골라 포스터, UCC 등으로 작성하면 된다.

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은 금융유관

기관이나 금융회사 등 금융교육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수 금융교육 실시프로그램 여부를 평가하며 총 5개 기관을 시상할 계획이다.

성인이라면 금융생활 체험수기 분야에 도전할 수 있다. 금융거래와 금융회사 이용, 금융관련 개혁 관련 체험을 담아 출품하면 이중 총 5명을 선발해 시상한다.

대학생 금융콘테스트도 진행한다. 전국 대학 금융관련 동아리라면 참가 가능하며, 금융교육과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관련 개혁, 금융신상품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아 참가할 수 있다. 총 5개 동아리를 선정한다.

/김영태 기자



신용카드 업무제휴 협약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14일 본점 9층 회의실에서 '전북은행-전주해성중·고등학교 동창회' 신용카드 업무제휴를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사진=전북은행 제공)

올 세계 경제성장률 0.2%p 상향

대외경제연구원 '2018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발표 선진국 회복세 지속... 美 성장률 전망 2.1%→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예상보다 0.2%포인트 상향했다. 선진국 경기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경제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IEP는 14일 발표한 '오늘의 세계경

제-2018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을 통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세계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지난해 11월 전망한 3.7%보다 0.2%포인트 높여잡은 셈이다.

KIEP는 미국의 경기 호조세가 뚜렷하고 선진국의 경제 회복세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신흥국 경제도 동반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와 비교하면, 미국의 성장률이 2.1%에서 2.8%로 크게 높아졌다. 일본은 0.9%에서 1.1%로, 유로지역은 1.8%에서 2.4%로 상향했다.

KIEP는 "미국경제가 선진국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유로지역과 일본에서도 고용지표의 개선이 지속되면서 인간의 소비와 투자 및 수출 활

성화가 나타나고 있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6.7%)과 러시아(1.6%), 인도(7.3%)는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KIEP는 "선진국 경제의 호조 가운데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자원부국인 신흥국의 경제 회복이 속도를 내고 있는 양상이다"고 분석했다.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는 ▲선진국 금리인상과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 ▲중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변화 등을 꼽았다.

/김영태 기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영업윤리 추가

앞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과 연수교재에 영업윤리 관련 문제 2~3개가 추가된다. 보험업계가 소비자 알 권리를 높이고 부실모집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한 지구책으로 풀이된다.

순해·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의식을 업계 전반에 고취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소비자와 정보 불균형 해소 ▲모집질서 개선 ▲성과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제고 ▲합리적 분쟁해결 프로세스 구축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충실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가 포함된다. 과도한 스카웃을 자제하고 부실모집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운영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도 담겼다.

윤리준칙에 따르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평가보상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공정한 민원처리 절차를 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민원분쟁 해결 프로세스도 구축한다. 또한 윤리준칙 준수 여부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내부자 신고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협회는 앞으로 보험업계 전반에 이같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를 자격시험 문제와 연수교재에 반영할 방침이다.

총 50문항으로 구성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 문항을 2~3개 추가할 예정이다. 기존 기초이론 6문항과 보험·법규약관 8문항 중 출제된다.

신입은 물론 기존 설계사 의식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도 강화한다. 보험설계사 등록 후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과정에 이같은 윤리문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축 제5회 품바명인전!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의회

시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명품의회

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